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1, pp.227-234, February 28,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227
JCCT 2019-2-27

효창공원의 역사적 중층성과 상징성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using Hyochang Park's historical middle layer and symbolism

강혜경*

Hyekyung Kang*

요 약 효창공원은 조선시대 문효 세자와 생모 의빈 성씨, 순조의 후궁 숙의 박씨와 영온 옹주의 묘가 있었던 왕실 묘역이었다. 고종대에 효창묘에서 효창원으로 격상되었다. 일제는 왕실묘역이었던 효창원을 훼손하여 공원으로 만들었으며, 1944년에는 효창원의 왕실묘역을 서삼릉으로 이장하였다. 해방 후 중경에서 돌아온 김구는 효창공원의 비어있던 공간에 독립운동자 묘역을 조성하였다. 삼의사묘, 임시정부 요인 묘가 그것이다. 김구 자신도 1949년 서거 후 효창공원에 묻혔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시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대한 정체성 변화시도가 끊이지 않아 효창운동장, 원효대사 동상, 북한반공투사위령탑 등이 세워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효창공원의 독립운동가 묘역은 다시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했다. 6공화국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으며, 이후 효창공원에 대한 국립묘지화와 독립공원화가 시도되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창공원의 역사적 중층성과 상징성에 주목하여 '독립의 길'이라는 주제로 스토리텔링을 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효창공원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효창공원, 정체성 변화, 독립의 길, 경관 스토리텔링, 대한민국 임시정부

Abstract Hyochang Park was the royal tomb of the Joseon Dynasty, where were the tombs of Prince Munhyo and his birth mother Ui-bin Seong, king Soonjo's concubine Sook-Ui Park and Youngon princess by a concubine. It was upgraded from Hyochang tomb to Hyochangwon at King Gojong. The Japanese imperialism destroyed Hyochangwon and made it into a park, also moved to Seosamneung in 1944. After returning from Chongqing after liberation, Kimgu made the independence movement tomb in the empty space of Hyochang Park. There were 3 martyr's tomb, provisional government figure tomb. Kimgu himself was buried in Hyochang Park after his death in 1949. During the regime of Rhee Seung-man and Park Jeong-hee, there was a constant attempt to change the identity of Hyochang Park, where independence activists were buried. Hyochang Stadium, Wonhyo buddhist priest's Statue and North Korean Anti-Communist Tower were established.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the independence activist tomb of Hyochang Park began to gain meaning again. The 6th Republic succeed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Constitution, also the national cemetery and independent park of Hyochang Park were attempted but the social consensus could not be achieved. This study focuses on the historical middle layer and symbolism of Hyochang Park and aims to contribute to social consensus on the identity of Hyochang Park by making a storytelling on the theme of 'Independence Road'.

Key words: Hyochang Park, Identity change, The Road of Independence, Scape storytelling,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n Government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접수일: 2018년 10월 16일, 수정완료일: 2018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19년 1월 6일

Received: October 16, 2018 / Revised: December 03, 2018
Accepted: January 06, 2019
*Corresponding Author: cosmopro@sm.ac.kr
Dept. of Korean History&Culture, Sookmyung Women's Univ,, Korea

Ⅰ. 서 론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효창공원이 조선시대 정조의 맏아들 문효 세자와 생모 의빈 성씨, 순조의 후궁 숙의 박씨와 영온 옹주의 무덤이 있었던 왕실묘역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효창공원은 조선시대 효창묘로부터 시작된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44년에는 일제가 왕실 무덤을 서삼릉으로 강제로 옮겼고, 이 빈 자리는 해방 후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되었다. 독립운동가 가운데서도 김구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이들이 주로 묻혀 있다. 효창공원은 삼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안중근 허묘)와 임시정부 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김구가 묻힌 곳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공원의 정체성, 상징성이 변화해 왔다.

1948년 제헌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라고 되어 있으며, 1987년 개정 공포한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는 근대국가건설의 토대가 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삼의사 묘역에 묻혀 있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그리고 허묘가 있는 안중근도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의열 활동으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임시정부 요인묘역에 묻혀 있는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도 임시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구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넓고 깊게 존경받아온 독립운동가로 1949년 6월 안두희의 총탄에 맞아 운명한 뒤 이곳에 묻혔다. 임시정부와 의열 활동을 대표하는 이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 상징성 또한 지대하다. 그럼에도 아직 효창공원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어떤 의미를 지닌 곳으로 역사적 해석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창공원이 역사공원도 아닌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역사공원은 200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주제공원 중 하나로서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전국의 역사공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총 169개소에 이른다. 서울시에는 단일 지자체로서 가장 많은 역사공원이 지정되었음에도 효창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1]

애국선열의 묘소가 있음에도 효창공원 관리하는 곳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다.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적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공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애국선열들이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창공원은 역사적 중층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임이지만 평소에는 인근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는 곳으로 일반 방문객들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효창공원의 역사적 중층성과 공간의 기억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사와 현대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관심을 유도해 효창공원의 정체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효창공원의 역사와 정체성의 변화

1. 효창묘에서 효창공원으로의 변화

조선시대 정조 10년(1786년) 5월 맏아들 문효 세자가 사망하자, 당시 경기도 고양군 율목동에 묘를 정하면서 효창묘가 조성되었다. 1786년 9월 생모였던 의빈 성씨도 사망하면서 정조는 문효 세자 묘 왼쪽 산등성이 언덕으로 의빈의 묘를 직접 정했다. 당시 효창묘의 영역은 지금의 효창동, 청파동, 공덕동 일대를 아우르는 영역으로 굉장히 넓고 송림이 울창했다. 효창묘에는 숙의 박씨와 영온 옹주의 묘도 있었다. 숙의박씨는 원래 궁인신분으로 순조의 승은을 입은 후 1817년 영온 옹주를 낳아 종 2품 숙의에 봉해졌다. 영온 옹주가 1829년 13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효창묘에서 동쪽으로 99보되는 지점에 묘소를 정하였다. 숙의 박씨도 1854년 사망하여 효창묘에 장지를 마련하였다. 효창묘는 문효 세자의 묘와 생모인 의빈 성씨, 순조때 후궁 숙의 박씨, 영온 옹주의 묘가 차례로 들어서며 왕실묘역으로 자리 잡았다. 고종 때인 1870년에는 효창원으로 격상되었다.[2]

왕실묘역이던 효창원은 개항 후부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으며 점차 훼손되기 시작했다. 1894년 5월 서울 도성 밖에 진주한 오시마(大島) 육군소장이 이끄는 혼성여단이 만리재에 주둔해 숲을 훼손하고 숙영지를 만들었다. 러일전쟁 때 서울을 강점한 일본은 1906

년 둔지미에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와 철도 거점을 조성하면서, 효창원 남쪽 영역이던 도원동에 유곽과 철도 관사를 만들어 왕실묘역을 잠식해갔다.

효창원은 일제강점기에는 공원으로 정체성이 변경되었다. 1921년 6월에는 효창원 숲을 파헤쳐 경성 최초의 골프장을 만들었다. 영국인의 설계로 9홀 규모로 문효세자의 묘를 울타리를 치고 빙 둘러싼 모양이었다. 골프장은 1924년 폐장되었다.

1924년부터 왕실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이 무상임대라는 방식으로 효창원의 절반 이상을 공원터로 허가하였다. 효창원이 공원이 된 것이다. 1930년대 말에는 공원을 유원지로 만들어 아동용 놀이시설을 세웠다. 1940년에는 총독부 고시 208호로 효창원을 공원으로 고시하였다. 1944년 4월 일제는 침략전쟁의 희생자 충령탑을 세운다며 효창원의 무덤을 전부 경기도 고양군 서삼릉으로 이장하였다.

해방이후 미군정 시기가 되면서 효창공원은 다시 한번 정체성의 변화가 왔다. 1945년 11월 김구가 귀국한 이후 효창공원을 주목하고, 직접 독립운동가 묘역을 조성하였다. 김구는 해방 전후를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의 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인물이다. 김구가 만든 효창공원의 역사성은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독립운동자 묘역이었다.

김구는 미군정 산하에 이왕직을 개조하여 설립한 구황실 사무청에 효창원을 독립선열묘역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타진하고, 현지를 답사하여 묘역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당시 언론인 최석채에 따르면 김구 측에서 7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효창공원이 국가 토지가 아니라 왕실묘역으로 왕실재산이었기 때문이다.[3] 김구가 독립운동가 김창숙과 함께 먼저 간 애국자들의 묏자리를 찾다가 정한 곳이라는 것이 지인들의 증언이다.

묘역이 마련되자 1946년 6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 유골을 일본에서 모셔와 부산 태고사에 안치하였다가, 7월 6일 효창원의 중심인 문효 세자가 묻혔던 자리에 국민장으로 안장하고, 왼쪽에는 안중근 의사가 묻힐 허묘도 마련하였다. 이봉창과 윤봉길은 김구가 조직한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 사쿠라다문 폭탄의 거, 홍커우공원 폭탄의거를 벌였다. 백정기는 무정부주의자연맹에 가담해 시설파괴, 요인 사살 등의 의열 활동을 했다. 이들은 모두 일본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해방이후 첫 국민장으로 치루어 진 삼의사의 장례식은 김구와 임시정부를 부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삼의사 묘 옆에는 안중근의 허묘도 만들었는데, 이는 안중근의 유해를 찾아내겠다는 김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해를 찾을 수 없어도 허묘는 가치있는 역사지이다.[4]

김구는 1919년 중국으로 망명해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경무국장・내무총장・국무령을 맡았고,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를 주도했다. 1930년대 이후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주석에 취임했다. 해방이후 1945년 11월에 귀국한 김구는 임시정부 봉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김구는 1948년 4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에 참여하였으며, 1948년 5・10총선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수립되고 한 달 남짓 후 1948년 9월 22일 이동녕, 차리석이 사회장으로 효창공원에 봉안되었다.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이동녕과 비서장 차이석의 유골을 중국에서 모셔와 효창원 동편 문효 세자 어머니 의빈성씨가 묻혔던 묘 자리에 안장하였다. 다음달 10월 14일 국내에서 서거한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조성환도 사회장으로 효창공원에 안장하였다. 김구가 이 사회장을 추진했다.

1949년 6월 안두희의 흉탄에 서거한 김구도 유언에 따라 7월 5일 효창원 서편에 국민장으로 안장하였다. 김구의 무덤은 효창공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임시정부묘역이라는 효창공원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구의 장례 행렬에는 무려 50만 여명이나 참여해 역사상 최대의 인파를 기록했다고 한다. 김구의 비서를 역임한 선우진에 의하면 효창원에 해외 독립선열 유골을 계속 모셔올 계획이었으나, 김구의 죽음으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해방 후 귀국하여 임시정부의 봉대를 주장하던 김구는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공간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효창공원의 삼의사묘와 임시정부요인 묘역을 조성하였다. 김구는 효창공원에 임시정부의 '국립묘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5] 이곳을 통해 임시정부의 법통성 즉 자신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국립현충원에 임시정부요인 묘역이 형성되었던 1993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유일한 임시정부 요인 묘역이 바로 효창공원이었다.

효창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이용되는 한편 선열묘역에 대한 추모행위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효창

공원이 해방이후 삼의사 묘, 임정요인 묘역, 김구 묘 등으로 독립운동가 묘역으로 정체성이 변화된 이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독립운동가 묘를 이장하려는 시도와 함께 효창운동장을 건설하는 등 효창공원에 대한 정체성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1956년 5월 효창공원에 독립운동가들의 묘소를 옮기고 10만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큰 운동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 공사를 강행했다.[6] 이 계획은 육상경기장 건립이었다. 효창공원 내에 근대적 설계로 육상경기장에 1만평을 할애하고 관람소에 8천 평을 할당하는 것으로 1956년 5월 1일 불도저를 앞세우고 경기장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효창공원선열보존회(회장 김창숙)가 구성되어 반발에 부딪쳐 중단되었다. 이 공사는 대한체육회에서 추진 중이던 상도동에 종합경기장을 건설하는 것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국회까지 나서 맹렬한 반대 속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육군 공병단은 참모총장의 명령으로 건설공사를 중지하였다. 중단되었던 공사는 축구경기장을 만드는 계획으로 변경되어 1957년 1월 24일부터 재개되었고, 27일에는 이승만대통령이 직접 효창공원을 시찰했다. 이후 1959년 5월 언론을 통해 제2회 아시축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 효창공원에 축구경기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서울시는 1959년 2월 제2회 아시아축구대회 개최를 이유로 축구전용 경기장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효창공원의 독립운동가 묘소 이장을 주장하였다. 이때도 효창공원선열묘소보존회의 강력한 반발로 이장되지는 않았지만, 묘소와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운동장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공사에 합의를 하였다. 1959년 11월 19일 축구장공사가 시작되어 제2공화국 시절이던 1960년 10월 효창운동장이 준공되었다. 이 공사로 독립운동가 묘역 앞 연못이 메워졌다. 1956년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축구대회에서 우승하여 차기 개최권을 얻자, 이를 명목으로 효창운동장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1960년 제2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한국이 우승하였다. 1956년이나 1960년도 대회는 각각 4개국만 참가해 국제대회로는 작은 규모였지만 대회 2연패는 국민들을 열광케 하기에 충분했다.[7] 이승만 정부는 국제축구대회의 우승과 축구 민족주의를 통해 효창운동장 건설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효창운동장은 국내 최초의 국제규격축구장으로, 2013년 서울시로부터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기에도 효창공원의 독립운동자 묘역에 대해 끊임없이 정체성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1962년 독립운동자 7위 묘소를 서오능으로 이장하려고 하였는데, 유족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사회의 각계에서 반대청원을 올려 무산되었다. 1966년에는 김구 묘에서 가까운 자리에 테니스장 5면이 설치된 후 1983년까지 15면으로 증면돼 사용되다가, 2000년 백범기념관이 착공되면서 철거되었다.

1968년 초 김구묘와 삼의사 묘 사이에 축구장 3분의 2크기인 5,500평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때도 반대 여론에 밀려 공사를 취소하였다. 1969년 8월에는 임정 요인 묘 북쪽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고,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가 조직되어 설치한 동상 가운데 하나인 원효대사 동상이 세워졌다. 8월 16일 동상 제막일 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였다. 1969년 10월 19일에는 이북5도민회의가 주관하여 북한반공투사위령탑이 세워졌다. 10월 19일 국군과 유엔군이 인민군을 평양에서 물리친 날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이다.

1972년에는 김구 묘 서쪽에 신광학원 도서관(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과 대한노인회 중앙회 건물이 들어섰으며, 중앙회 건물 옆에는 노인 회관을 건립해주서 감사하다는 육영수 송덕비가 세워져 있다. 1972년 묘지 진입로와 돌계단을 설치하면서 주변 경관 조성사업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공원출입을 금지시켰다. 1977년에는 효창공원을 건설부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으로 고시하였다. 박정희 정권시기 효창공원은 당시 강조하던 애국과 반공의 상징이 부여되었다.

2. 효창공원을 둘러싼 중층적 정체성과 성역화시도

1982년 효창공원은 재개방되었으며, 입장료를 받게 되었다. 효창공원은 1989년 6월 8일 사적 제330호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7월 서울 효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7년 민주화가 이루지면서 효창공원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김구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부터였다. 이때부터 정치인들의 참배와 효창공원의 성역화가 시작되었다. 1987년과 1992년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

했던 후보자들이 선거 전에 효창원을 참배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효창원의 성역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야 묘역 정비와 개방이 이루어졌다. 1989년 6월 독립운동가 묘역이 사적 330호로 지정되었으며, 1989년 11월에 의열사와 창열문이 건립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식에서 신한국창조를 선언하면서 문민정권을 김구의 상해 임시정부로 연결시켰다. 임시정부 순국선열 5인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봉안하고 과거군사정권과의 단절을 강조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국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근대국가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새 문민정부는 이 같은 임시정부의 빛나는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습니다.”라고, 문민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영삼 정부시기 김구 묘를 국립 현충원으로 이장하려고 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비교적 큰 규모로 조성돼 있는 김구 등의 묘소를 국립 현충원으로 이장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규모를 줄여야하기 때문이었다. 묘지 이장에 대해 유족회나 기념사업회 등도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반대하였다. 조선왕실의 무덤이던 이곳을 일제가 훼손한 것을 항일운동의 상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효창공원을 참배하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3·1절 격려사에서 이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받드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정부를 상해 임시정부와 직결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수립 50년 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임시정부와 김구를 적극 부각시켰다. 1998년 12월 3일 김대중 대통령이 백범기념관 건립지원을 약속하였으며, 1999년 8월 3일부터 백범 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김구기념관은 2002년 10월 22일에 개관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효창공원의 독립공원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13일 오전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정부수립 제84주년 기념식에서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떨친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상해에서 항주, 중경 등지로 이동하면서도 그 법통을 굳건히 지켰다”고 말하고, “오늘의 참여정부는 바로 그 임시정부의 자랑스런 법통위에 서 있다”고 하였다. 2005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가 완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라”고 주문하였고, 국가보훈처가 2005년 12월 21일자로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조성사업을 공모하기도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만인 2009년 4월 무산되었다.

효창공원을 국립묘지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국회에서 2번이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2007년 당시 열린 우리당 김희선 국회의원이 국립묘지 종류에 효창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무산되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김희선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면서 “건국이후 가장 먼저 국립묘지의 예우를 받았어야 하는 곳이 바로 효창원”이라고 말했다. 2013년에는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공원의 자유로운 이용과 집값 하락 우려도 있다는 지역주민의 반발로 폐기되었다. 당시 주민들이 국립묘지화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이용시간에 제한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현재 국립묘지로 지정된 국립현충원, 광주 5·18기념공원 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창공원도 이용에 불편이 따른다는 것이다. 둘째, 국립묘지로 승격될 경우 묘지가 더 안장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꺼림칙하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효창공원에 있는 독립운동자 묘역을 참배하였으며, 보훈처를 중심으로 독립공원화를 모색하고 있다.

효창공원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원과 문화재로 혼재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공원화와 국립묘지화로 대표되는 성역화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위로부터의 공원 정체성 변화가 가능했지만, 민주화 이후 오늘날은 시민사회와 합의와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효창공원의 경우 한국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임시정부와 관련된 역사의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

III. 효창공원의 정체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효창공원은 조선왕조, 일제강점기, 해방 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당대 권력자들의 정치성이 강하게 개입되어, 공원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만들어왔다. 집권세력의 정치이념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효창공원이 이제는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문화 트렌트가 더 큰 변화요인으로 작동되기 시작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6공화국 정부에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성역화와 독립공원화를 계획하였으나,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용되기도 하고 현실화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공원으로서의 성격이 일제 강점기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지만, 시민들이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용하면서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이전에는 위로부터의 공원 정체성변화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공원의 정체성과 상징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진행중인 효창공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장소의 기억들을 살려 독특한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효창공원의 정체성을 '독립의 길'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풀어나가고자 한다. 역사문화 콘텐츠에서 스토리텔링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콘텐츠에서 스토리텔링은 강조되고 있으며, 사실적 정보 전달의 영역에 속하던 교육과 정보 콘텐츠의 영역에까지 활용 되고 있다.[9] 효창공원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가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훌륭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이다. 인터렉티브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의 생산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다른 소비자, 소비자와 다른 생산자를 이어나갈 수 있어 인적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부가가치 또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인터렉티브 스토리텔링에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오프라인에서 맺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온라인으로 확장 및 재현하여 소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다. 효창공원을 활용한 '독립의 길'스토리텔링에서도 정체성을 형성을 위한 인테렉티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스케이프 스토리텔링(Scape Storytelling)은 경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경관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자연경관과 자연경관에 인간의 영향이 더해진 문화경관으로 이루어진다. 효창공원의 경우 문화경관으로 스토리텔링해볼 수 있다. 최근 문화재의 범주로 재 고찰되는 문화경관은 천천히 변화하는 자연경관이 인간 활동, 즉 문화과정에 의해 변형되어 나타난 가시적 형태이다.[10] 경관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의 생성과 성장, 변화의 유기체적 속성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즉 효창공원의 경관 변화에 그에 따른 의미와 정체성의 변화 등에 주목하여 스토리텔링을 해볼 수 있다. 효창공원에 대한 다양한 역사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균형 있고 창의적인 스토리로 재구성하고, 이해하기 쉬운 객관적인 진술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학 등을 결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경관 스토리텔링의 과정은 크게 스토리 발굴-스토리 체험-스토리 공유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경관이 보유한 스토리를 목록작성을 통해 나열되고 그중 장소를 가장 잘 대표하는 스토리가 선정된 후 테마를 추출함으로써 스토리의 발굴이 이루어진다. 발굴된 스토리는 체험환경과 정보환경의 조성을 통해 방문객의 체험으로 이어져 공간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렇게 개별체험으로 생겨난 공간적 유대감은 커뮤니티 환경을 통해 장소성으로 승화하면서 유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다.

현재의 효창공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바로 독립운동가 묘역의 존재이다. 이를 '독립의 길'로 스토리텔링한다면 그 의미를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독립의 길'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방문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방문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교감을 나누며, 경관을 이용한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효창 '독립의 길' 스토리텔링

효창공원내의 삼의사 묘-임정요인 묘-김구 묘(묘 조성 시간순)에 이르는 길을 효창 '독립의 길'이라 명명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효창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삼의사 묘, 임정요인 묘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피상적인 내용만 알고 있을 뿐 역사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있다. 역사는 해석의

학문으로 오늘의 입장에서 그들을 재해석해보고 공원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수능에서도 한국사를 필수로 응시하게 하는 등 국가차원에서도 한국사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교육의 시험이 있는 한 한 두 줄 그리고 단어로 밖에 알 수 없었던 한국독립운동의 역사”[11]를 해외 독립운동지 답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잊고 살아왔음을 인식하였다는 경험을 통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접 ‘독립의 길’을 걸어보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독립운동 역사의 발판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국내외적 흐름을 이해한 바탕위에, 삼의사와 임정 요인, 김구 등의 활동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이 항일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결과를 쉽게 구성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김구의 소망이자 효창공원에 묻혀있는 독립운동가들의 공통된 소망은 조선의 독립과 근대국가건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하였던 ‘독립의 길’은 남북한의 분단으로 중간 중간 끊기듯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 효창 ‘독립의 길’은 이루지 못한 독립에 대한 회한과 추모의 길이면서, 경의선 효창공원역을 아우르는 ‘통일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표 1. 효창 ‘독립의 길’ 스토리
Table 1. Hyochang ‘The Road of Independence’ Story

독립의 길		
조성 시기	명 칭	주요 인물
1946	삼의사의 길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안중근
1948	임정요인의 길	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1949	김구의 길	김구

2. 효창 ‘독립’축제 스토리텔링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 후 독립의 기념방식은 항상 엄숙하고 일제의 탄압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다. 일제의 탄압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식과 노선의 독립운동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독립을 축제 형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창독립축제 스토리텔링이다. 이러한 축제형식의 행사는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경제적 가치창출은 물론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주체는 지역주민, 객체는 방문객들로 주체인 지역주민을 하나로 만들고, 응집시키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거나 대안소재를 창의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객체인 방문객을 위해 이러한 소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나 이벤트, 서사적으로 들려주는 사료나 프로그램 등을 통일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체와 객체를 고려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을 통해 효창독립축제는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지역축제로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효창독립축제 스토리텔링에 활용될 수 있는 소재로는 ‘김구 백범일지 낭독회’, 용산에 소재하고 있는 ‘이봉창 기념관과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에 있는 유관순 추모비와 추모제’ 이어가기, 경의선 효창공원역으로 이어지는 ‘독립에서 통일로’ 행사 등을 기획해 볼 수 있다.

3. 효창공원 경관 스토리텔링

효창묘에서 효창원으로, 효창공원에서 서울효창공원으로 이름의 변화와 더불어 왕실묘역에서 공원이자 독립운동자 묘역으로 장소의 상징성과 활용이 변화해왔다. 현재도 독립공원화 혹은 국립묘지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효창공원의 중층적 상징성은 스토리텔링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다. 효창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관 스토리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2. 효창공원의 경관변화 스토리
Table 2. Hyochang Park's scape change story

시기	명칭	변화내용
조선왕조	효창묘, 효창원	묘(정조, 순조)에서 원(고종)으로
일제강점기	효창원, 효창공원	왕실무덤 이장, 공원화, 유원지화
미군정기	효창공원	독립운동자 묘역화(삼의사 묘)
이승만 정부	효창공원	독립운동자 묘역화 (임정요인 묘, 김구 묘) 정체성 변화시도(효창운동장 건립)
박정희 정부	효창공원	반공공원화 시도(원효대사 동상, 반공투사위령탑)
노태우 정부	효창공원	묘역을 사적 330호로 지정 의열사 창열문 건립
김영삼 정부	효창공원	해외 임시정부 요인 5인 국립 현충원 이장, 이봉창 동상 건립, 임시정부 법통 계승 주장
김대중 정부	효창공원	김구 기념관 건립, 임시정부 법통계승 주장

노무현 정부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시도와 좌절, 임시정부 법통계승 주장
문재인 정부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모색 이봉창 기념관 건립예정, 임시정부 법통계승 주장

효창공원의 경관 변화에 따른 스토리들을 다양하게 스토리텔링하여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거나 SNS 등을 통해 소개하여, '독립의 길'이 효창공원을 대표하는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앞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혹은 역사적 필요성에 따라 정치지도자로서 김구는 재평가될 것이고,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임시정부의 역할에 대한 해석과 평가도 다양해질 것이다. 효창공원도 이러한 역사적 평가의 변화에 따라 스토리텔링, 혹은 이러한 해석을 주도하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역사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효창공원은 과거에는 위로부터의 정체성 변경시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대의 요구, 시민의 욕망에 따라 정체성이 변화해 갈 것이다. 한국인의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가지는 의미를 찾는 과정에 있는 한 효창공원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References

[1] Y.K Go, H.S So,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Current Status of Historical Park in Seoul"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Vol.34, No.1, pp75-117, 2016.
[2] H.G. Kim, "The Formation of Spatiality of Hyochang Park and an Analysis of its Transformation"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Vol, No.39, pp 79-111, 2010.
[3] A gathering of members of parliament to set up the nation right, "Hyochang-won's name restoration and correct modality discussion debate" 2007.
[4] H.J.Yoon, "Seoul Walk the trail of memories about Ahn Jeung Geun"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n Seoul, Vol.14, pp 211-217, 2011.
[5] D.H. Im, "Death that Koreans do not remember and death to remember"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n Seoul, Vol.14, pp 235-241, 2011.
[6] JongSung Lee, "Staging the 1960 Asia Football Championship in Korea and the Construction of Hyochang Park Stadium" Korean Journal of Sport Studies, pp13-23, Jan 2016.
[7] Ji Soo Kwak, "(The) mecca of Korea's soccer, a study on historical signification of the Hyochang stadium" Chung-Ang Univ,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p9-22, Feb 2016.
[8] S. Y. Han, Y. G. Kim, K. J. Zoh, "Social Construction of Place Representation and Place Identity Process in Hyochang Park"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Vol.9, No 2, pp 165-177, 2011.
[9] G.S Park, S.B Ahn, D.E Lee, H.Y Han, "Current State and Outlook of Cultural Contents Storytelling"Korea Humanities Content Society, Vol, No.27 pp9-24, 2012.
[10] E.H Cho, "Culture Content and Story Content : The Values and Prospects in Story Content" The Society of Cultural & Art Studies pp99-126, Vol.1, 2012.
[11] M.S. Song, S.J Bae,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exploring historic sites of independence movement oversea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4, No.3, pp.15-26, 2018.